

주일의 기도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순간 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새
성전에서의 기대와 소망이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교우들이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정의 말보다는 긍정의 말이 가득한 입술 되게
하옵소서. 완공 될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의 광야와 우리의 광야교회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함께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전건축에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말기통운동 >

1. 말씀(에스라 성경읽기)

가. 온라인 성경읽기 조 /

- 신청방법 :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신청
- 성경읽기 방법: 연대기순으로 한 주 동안 읽을 본문을 카톡방에 올려
조별로 성경 읽음. 그날 본문을 읽고 나서 카톡방에 읽은 말씀 중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아멘’
- 나. 현재 **84명**이 완료하였고, **87명**은 통독 중에 있습니다.

2. 기도

가. 예레미야 기도(사랑의 집 2층)

- 기도 스케줄표 : 월요일 ~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1시간 단위로 신청.
- 방법 : ‘사랑의 집 2층’에서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순서’에 따라 기도.
- 중보기도학교 비수료자는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제목으로, 중보기도학교 수료자는 중보기도함(안쪽방에 비치)에 있는
기도카드와 함께 기도.

나. 다니엘 기도(삶의 자리) /

- 기도순서 : 구명대 19개조, 교회학교 6개조, 청년부 2개조로 나뉨.
- 방법 : 기도카톡방에 구명장, 부장, 중그롭장이 올린 기도제목으로 각자
처소에서 기도.
- 기도는 하루에 세 번(아침, 점심, 저녁) 하고, 기도를 하면 카톡방에
‘아멘’하면 됨.

다. 새벽기도 /

- 새벽기도를 오전 5시 30분에 드리며,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진행합니다.(온라인예배: 홈페이지 - 가정예배 - 매일만나예배)

3. 성전건축 저금통

느헤미야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구역을 나눠서
맡고, 한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할 때 난관을 극복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교회도 새성전을 건축할 때,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성전을 지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온 성도들의 정성을 모을 수 있는
건축저금통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11/22)까지
259개**의 저금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저금통에 건축기간동안 자유롭게 모으고, 다 채워진 저금통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계수 후 빈 저금통은 사랑의 집
지하 1층 예배실에 진열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우리의 기도

(2020년 12월)



“함께 세우는 교회(엡 2:22)”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교회

월요일의 기도

밤낮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돌아보며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지어질 안양교회 새 성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건축의 완공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현장이 안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성전에서의 예배드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안양교회에 넘치게 하셔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성도와 함께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의 기도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안양교회의 건축의 완공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새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기대합니다. 순간마다 기도의 팔이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안전사고와 재정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공사 현장에 기쁨의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안양교회 새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시작점이요, 이웃을 향한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온 성도와 함께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의 기도

성전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새 성전 완공 만큼이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교회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안양교회 공동체 모든 가정마다 풍족함으로 채워 주셔서 즐거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안양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 성전에서 되어질 사역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함께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의 기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가정을 지켜 주시고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서로가 사랑하는 가정,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족 모든 식구들이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일터를 지키게 하시고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 성전건축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완공까지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민원보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함께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의 기도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짜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시원한 생수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안양교회 새 성전 건축을 지금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 좋은 날씨와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되어질 모든 건축도 지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모임과 예배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성도와 함께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의 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안양교회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낳고 양육하며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세대 속에서 부모와 교사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습관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을 통해 지역의 다음세대들을 세우게 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따르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안양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성도와 함께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